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6.(목) 11:00 (금요일 조간) 배포 2026. 11. 25.(수)

국토와 환경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 제3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 개최, 5극 3특 국토 균형성장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국토·환경계획 연계 강화
- 지역 성장거점 조성, 공간정보 공동활용 등 실질적 협력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소재 회의실에서 제3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공동의장: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를 개최하고, '2026~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 (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등

이번 추진방안은 현재 수립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의 연계성을 높이고, 부처 간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을 상호 연계·보완하는 부처 간 협력 과정이다. 두 부처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협의회를 개최하여 계획 기간을 일치시키고,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이번 통합관리 추진방안은 지난 2019년 마련한 5대 전략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5극 3특 균형성장, 국토생태축 연결,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토·환경 관리 등 변화된 정책 여건이 반영되었다.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5대 전략 >

❶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5극 3특 중심의 국토공간 재편
❷ 국토생태축 연결과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의 균형
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국토환경 조성
❹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 공간 구현 및 관리
❺ 국제적 환경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수정된 5대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육성하고,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생활권을 연계하는 다핵 균형국토를 조성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초광역권-생활권 중심의 국토공간 재편에 맞춰 권역별 도시환경관리 강화 및 환경 기반시설(인프라) 최적 연계·운영을 도모하고, 광역 전력망 확충과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추진한다.

둘째, 국토생태축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요 생태축 연결·복원, 도시 생태공간 확충, 보호지역 확대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정주 공간의 녹지 확충 및 관리를 강화하고, 개발 과정에서 생태축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의 선순환을 도모한다.

셋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양 부처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을 함께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청정 전력 공급, 산업·수송 탈탄소화, 에너지효율 개선 등의 추진과 함께, 탄소흡수원 확충, 자연기반해법 등을 통한 기후적응과 기후재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도시 조성,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 탄소배출을 줄이고, 방재시설 확충과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를 통해 국토 회복력을 높인다.

넷째,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국토·환경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시티 조성, 가상현실(디지털 트윈) 기반 국토관리와 미래·친환경 이동수단(모빌리티) 혁신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공지능, 위성 기반 국토환경 통합 감시(모니터링) 및 오염관리를 강화한다.

다섯째, 국제적 환경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해 비무장지대(DMZ) 및 접경지역 등의 경제·생태관광 협력과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다변화 모색, 탈탄소·생물다양성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아울러, 5대 전략 외에도 국토·환경계획의 연계가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용수의 공급과 지역 재생에너지 생산·활용 활성화 등 관련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토공간정보와 환경정보의 공동활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개발·생태관광 연계 등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공동 성과지표 마련 등도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두 부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계획 수립지침을 개선하고 통합관리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며,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생태축 보전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적 가치를 국토공간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인구감소와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국토의 균형성장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함께 실현해야 할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성장과 환경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국토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3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 개최 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책임자	과장	손명균 (044-201-7270)
		담당자	사무관	현세환 (044-201-7275)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익진 (044-201-3646)
		담당자	사무관	김기욱 (044-201-365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제3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 개최 계획**

□ 추진배경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40) 및 국토종합계획('20~'40)의 수정에 앞서 양 계획 간 상호 연계·협력 강화 방안 협의

□ 협의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26.11.27(금), 10:30~12:00, 서울 필원 회의실(광화문역 인근)

○ **(참석자)** 기후부 기획조정실장, 환경정책기술담당관, 국토환경정책과장,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국토정책과장, 외부 전문가 시민사회·학계·관계기관 등 20여명

○ **(주요내용)** ①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발표, ②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 발표, ③양 계획 간 연계·협력 강화(안) 발표

□ 세부 일정(안)

시간		주요내용	비고
10:30~10:3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0:35~10:40	(5')	인사말씀	양 실장
10:40~11:10	(30')	안건 발표 (각 10분) ❶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❷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❸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	국토연 환경연
11:10~12:00	(50')	종합 토의	